

매력도시 서울을 위한

제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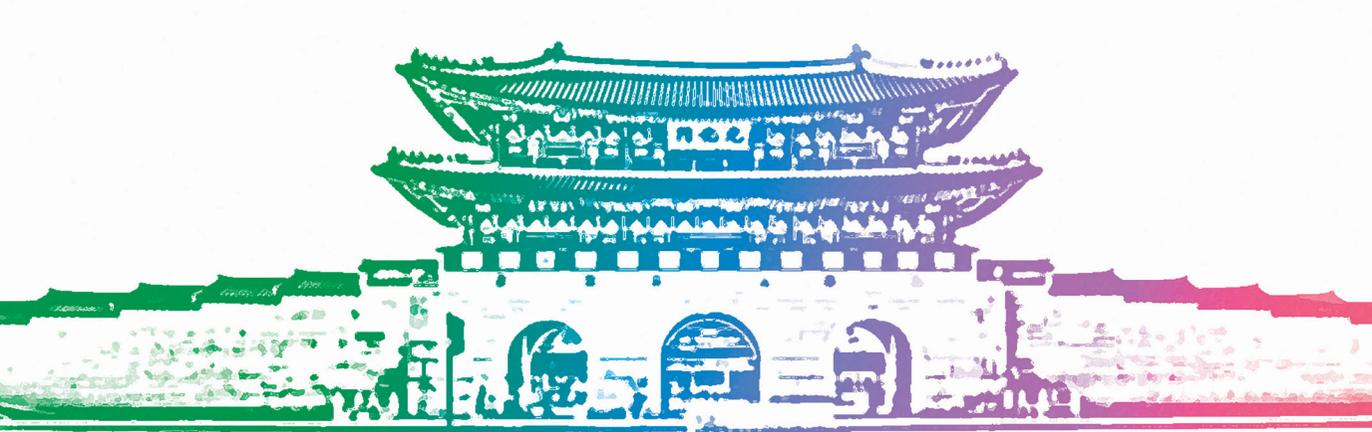
서울문화예술포럼

과학문예대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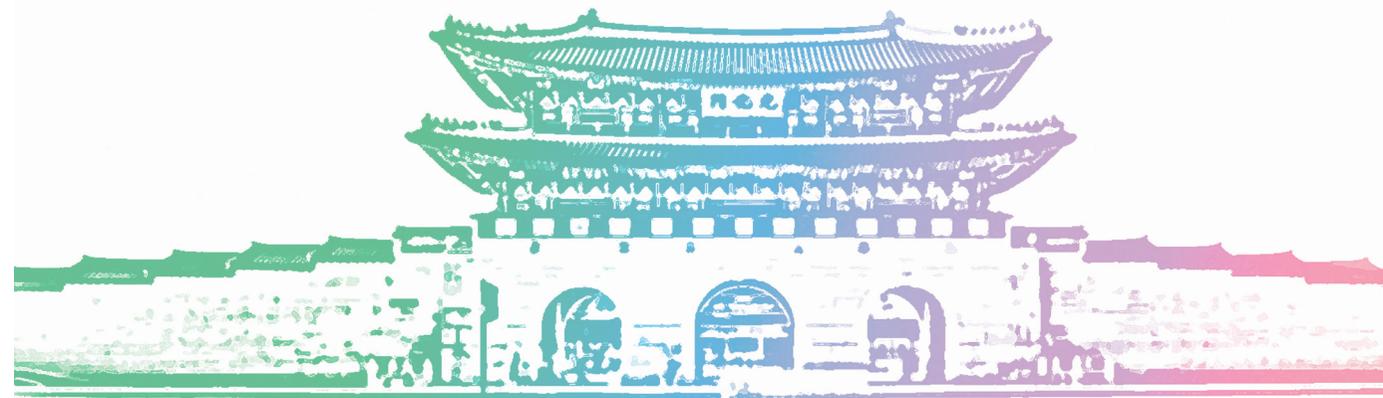
일시 | 2023년 6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 청년예술청 그레이룸



목차

서울문화예술포럼 소개	04
프로그램 안내	05
사회자 및 공연진	06
주제 발제 ①	08
주제 발제 ②	26
주제 발제 ③	40
서울문화예술포럼 운영위원회	44



운영 취지

- 문화정책 이슈, 문화예술의 미래가치 등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담론 형성
- 서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전문가 교류 협력 및 거버넌스 역할 수행

추진 경과

- 2022. 1. 26. 서울문화재단 3대 전략, 10대 혁신안 발표
- 2022. 6. 10. 서울문화예술포럼 운영 준비회의 개최
- 2022. 6.~ 서울문화예술포럼 운영위원회 구성
- 2022. 7. 서울문화재단 新 전략체계 ‘ESG 참여확대’ 경영목표 수립
- 2022. 7. 28. 서울문화예술포럼 추진계획 수립
- 2022. 9. 7. 서울문화예술포럼 출범,
제1회 서울문화예술포럼 ‘포스트 코로나 문화예술 전망과 서울의 문화전략’ 개최
- 2022. 11. 29. 제2회 서울문화예술포럼 ‘기후위기와 문화예술’ 개최
- 2023. 2. 9. 2023년 서울문화예술포럼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2023. 3. 31. 제3회 서울문화예술포럼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와 정책방향 모색’ 개최

운영 방향

-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과 거버넌스 확장을 위해 각 분야의 예술가, 문화기획자, 전문가 다수가 참여하여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미래지향적인 주제들을 폭넓게 제시
- 시민 문화향유와 트렌드, 지속가능한 예술창작생태계,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시대의 문화공간 등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개최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4회 서울문화예술포럼
- 주 제 : 매력도시 서울을 위한 광화문 일대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 일 시 : 2023. 6. 8.(목) 오후 3시
- 장 소 : 청년예술청 그레이룸 (유튜브 채널 스팍TV 동시 중계)

주요 내용

새로운 광화문광장, 열린송헌 녹지광장 조성, 청와대 개방, 국가상징가로 추진 등 일련의 도심권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추진에 따라 문화예술자원 활용을 통한 서울 도심공간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방향을 논의해봅니다.

행사 일정

사회 : 손수연(서울문화예술포럼 운영위원,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

15:00	개회	행사 안내 및 참석자 소개
15:05	오프닝공연	시를 노래하다, 최여완의 정가(正歌) - 최여완, 양인성(대금)
15:15	개회사 및 인사말씀	서울문화예술포럼 공동회장 개회사 - 박상원 (재)서울문화재단 이사장, 배우 - 최태지 前 국립발레단장 서울문화예술포럼 운영위원장 인사말씀 - 이창기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15:20	주제 발제	① ‘문화매력도시 서울’ 비전 실현을 위한 광화문 일대 문화·관광 정책 추진 현황 - 전재명 서울시 문화정책과장 ② 광화문 일대 문화예술 클러스터의 가능성과 경쟁력 -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③ 지역 문화와 크리에이터 자원을 활용한 광화문 문화지구 조성 방안 -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6:20	질의답변	질의답변 및 토론 폐회 및 마무리

사회자



손수연

단국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오페라 평론가로서 각종 매체에 고정 칼럼 연재 및 평론 기고,
오페라 전문 인문학 강의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연 기획과 연출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2016 대한민국 음악대상 오페라평론 부문상 수상
- 2015 제8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예술상 평론부문 수상
- 저서 <그림으로 읽는 아리아>

오프닝공연

시를 노래하다, 최여완의 정가(正歌)



최여완

정가 보컬리스트 최여완은 국가무형문화재 30호 가곡 전수장학생으로,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 윤동주 창작음악제 •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
북촌우리음악축제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차세대 가객으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JTBC '풍류대장'에 출연해 극찬을 받으며 주목받기도 한 최여완은
이후 다수 프로그램 출연하고, '엄마이름, 박순녀', '달에게', '새로운길',
'꽃날' 음원을 발표하는 등 음악의 영역을 확장하여 대중과 보다 가깝게
소통하고 있다.



양인성 대금 연주자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재학
- 세향국악오케스트라 부수석, 단원 역임
- 대학연합국악관현악단 악장 및 이사

공연 프로그램

1. 여창지름시조 '청조야' (작자 미상)

멀리서부터 온 임의 소식을 크게 반기며 기뻐하는 내용의 시조이다.

2. 저기 저 꽃 무슨 꽃일까 (작사 김필연 / 작곡 정보형 / 편곡 정보형, 최여완)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에서 소년과 소녀의 마음에 싹트는 풋풋한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창작곡,
원곡을 정가의 느낌을 살려 편곡하고 후반부에 시조 '모란은 화중왕이요'를 엮어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3. 아름다운 나라 (한태수 작·편곡/채정은 작사)

청조야 오도고야 반갑다 임의소식

여창지름시조 '청조야'

약수삼천리를 네 어이 건너온다

우리님 만단정회를 네 다 알듯 (하노라)

저기 저 꽃 무슨 꽃일까

풀꽃 향기 들꽃 향기 살랑이는 가을날

산마루에 뭉게구름 햇살보다 가벼워라

역새핀 발두렁에 마타리꽃 도라지꽃

위잉위잉 고추잠자리 사리꽃도 한창이라

아이야 아이야 저기저 꽃 보아라

침녕쿨 비탈길에 빨간 꽃 피었네라

아 저기 저 꽃 무슨 꽃일까

무슨 꽃일까

아이야 조심조심 내 손을 잡아요

풀꽃 향기 들꽃 향기 살랑이는 가을날

산마루에 뭉게구름 햇살보다 가벼워라

역새핀 발두렁에 마타리꽃 도라지꽃

위잉위잉 고추잠자리 사리꽃도 한창이라

모란은 화중왕이요

향일화는 충신이로다

박꽃은 노인이요

석죽화는 소년이라

아이야 빨간 꽃 내 꽃을 받아요

내 꽃을 받아요

아름다운 나라

저 산자락에 긴 노을지면

걸음 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

밤 달빛에도 참 어여빠라

골목 골목 선 담장은 달빛을 반기네

겨울 눈꽃이 오롯이 앉으면

그 포근한 흰빛이 센 바람도 재우니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큰 추위로 견뎌낸 나무의 뿌리도

봄 그리운 맘으로 푸르다

푸르게 더 푸르게

수 만잎을 피워내 한 줄기로 하늘까지 뻗어라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아름다운 나라

주제 발제 ①

문화매력도시 서울 비전 실현을 위한 광화문 일대 문화-역사 클러스터 정책방향



제4회
서울
문화예술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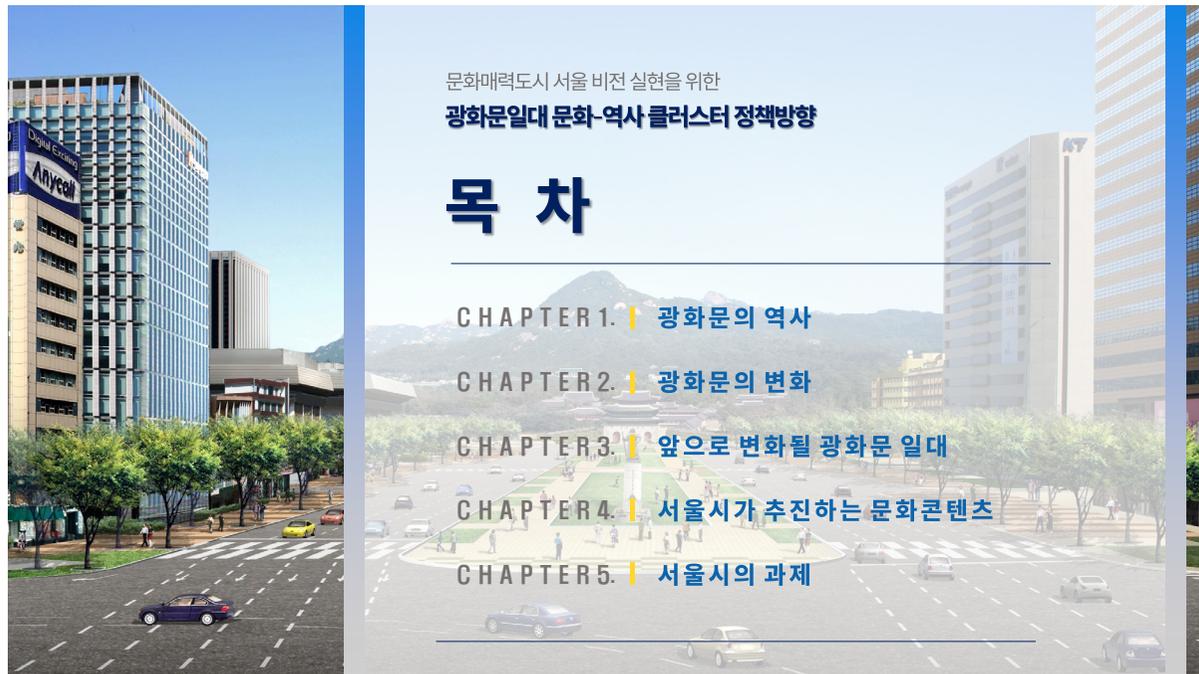


전재명 서울시 문화정책과장

2017 서울시 동물보호과장

2020 서울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2021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자치경찰총괄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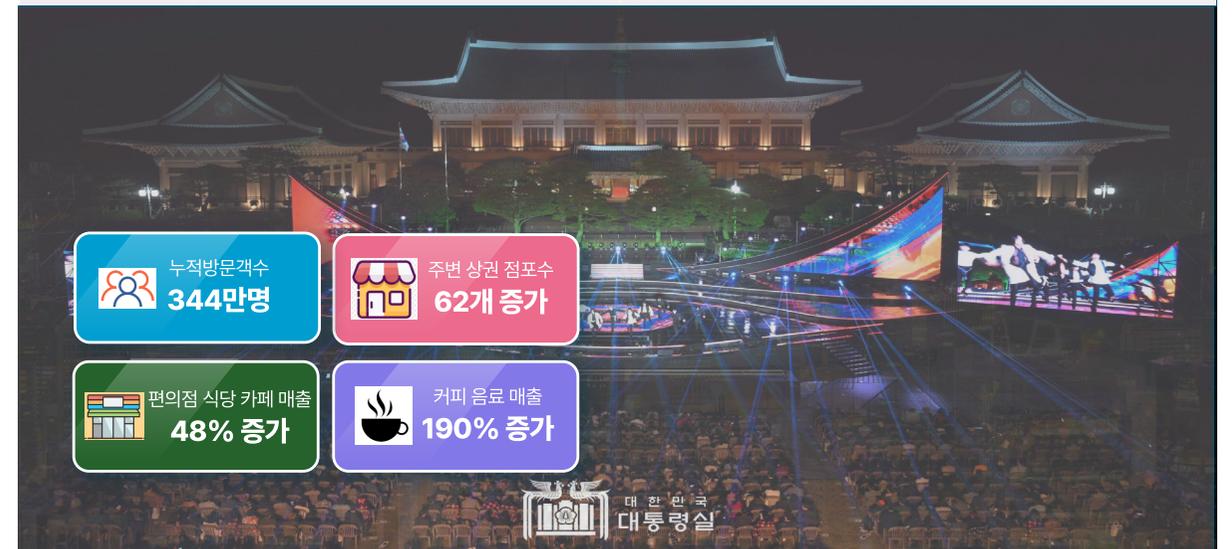
1. 광화문의 역사
조선시대~일제강점기의 광화문



1. 광화문의 역사
근현대부터 현재까지의 광화문



2. 광화문의 변화
'22.5월 권력의 상징 청와대, 시민에게 개방





2. 광화문의 변화

광화문일대 문화랜드마크 (가칭)이건희 기념관 개관 예정



[사업개요]
 위치 :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
 기간 : 2025~2027.12.
 면적 : 30,000m²

3. 앞으로 변화될 광화문 일대

조선시대 최고 관청인 의정부 유적 정비 및 복원



[사업개요]
 위치 : 종로구 세종로 76-14 일원 5필지
 기간 : 2015년 ~ 2025년(예정)
 면적 : 11,300m²(시 6,463m², 국 4,837m²)
 총 사업비 : 약 114.5억원



- 2015~21년 1~4차 발굴 조사 국가 사적 지정(제558호)
- 2022~23년 조선 최고 행정기구 의정부 유적 역사 유적광장으로 조성
- 2024~25년 의정부지 내 디지털 안내·체험 공간 조성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 개발



3. 앞으로 변화될 광화문 일대

광화문 일대 복원을 통한 역사성 회복



[사업개요]
 위치 :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
 기간 : 2022.9~2023.10.
 크기 : 남북 48.6m, 동서 29.7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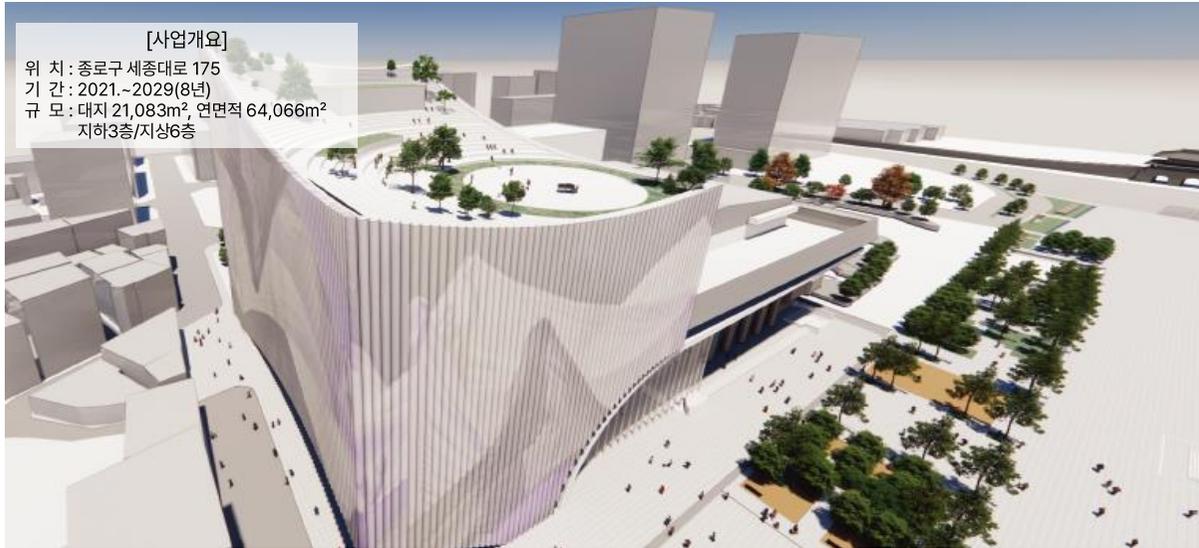


3. 앞으로 변화될 광화문 일대

세종문화회관 서울의 대표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빌딩

[사업개요]

위 치 : 종로구 세종대로 175
 기 간 : 2021.~2029(8년)
 규 모 : 대지 21,083m², 연면적 64,066m²
 지하3층/지상6층



4.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콘텐츠

서울야외도서관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4.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콘텐츠

광화문광장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전통등 전시회



문화가 흐르는 예술광장



전통등 전시

4.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콘텐츠

희망의 빛으로 광화문을 밝히는 서울라이트 강화, 빛초롱 축제



4.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콘텐츠

광화문에서 연중 계속되는 다양한 문화 축제



5. 서울시의 과제

구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 발걸음을 이끄는 유럽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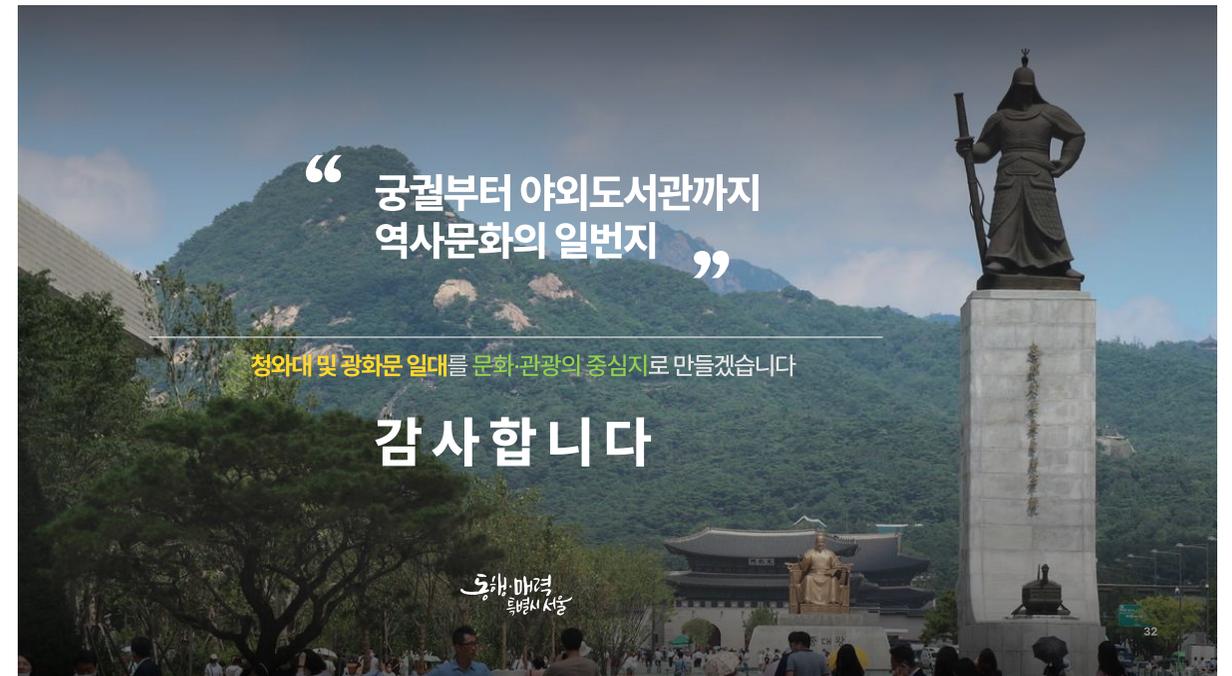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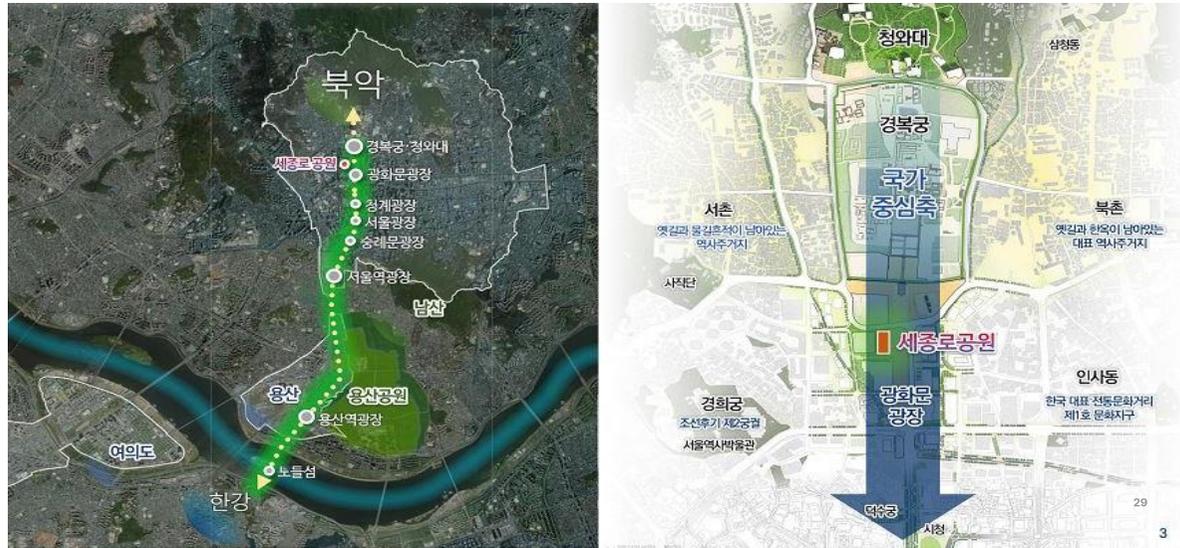
5. 서울시의 과제

광화문 주변 역사문화자원 북촌·경복궁 서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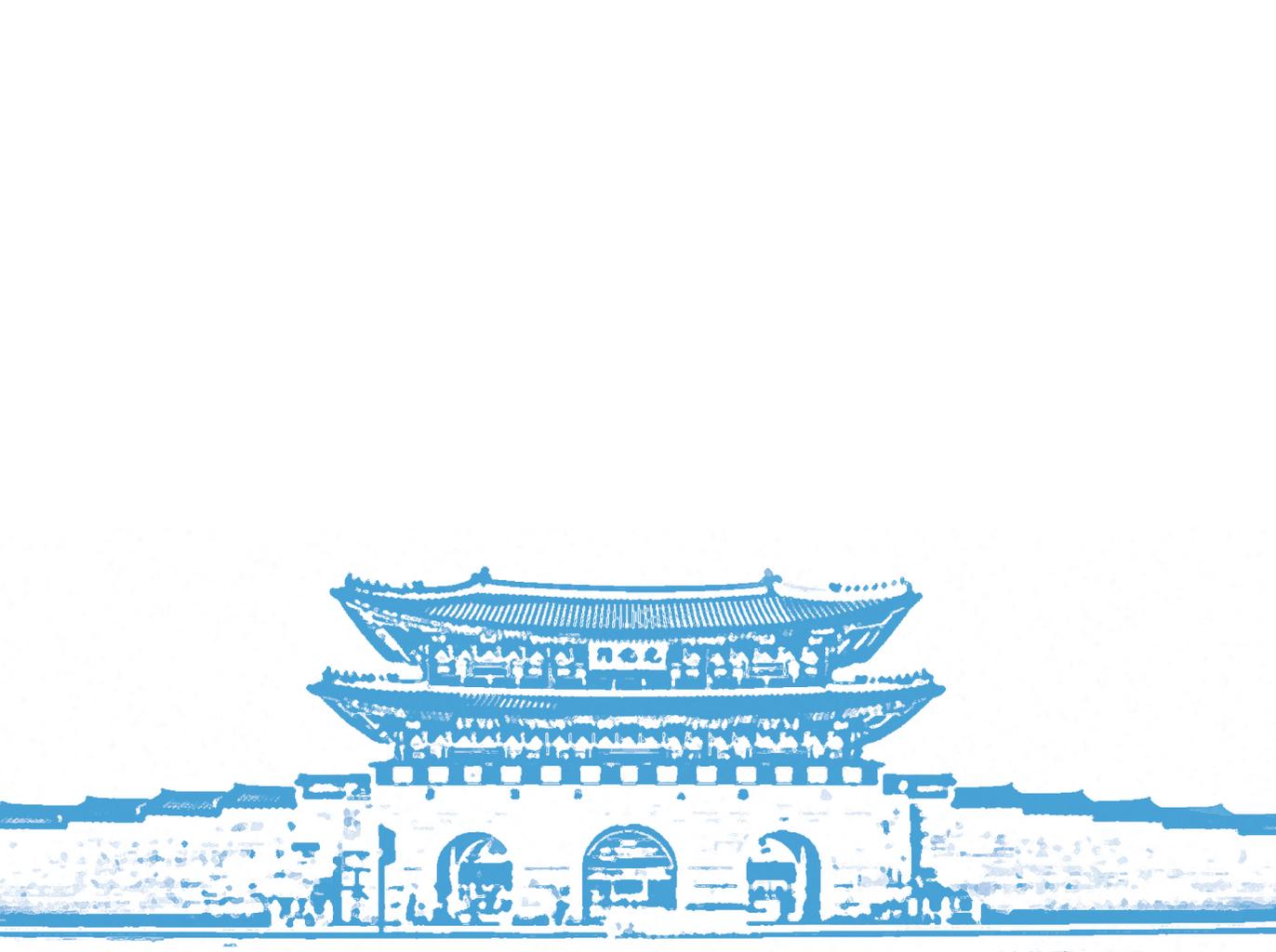
5. 서울시의 과제

청와대에서 노들섬까지 광화문 중심의 통합 브랜딩을 통해 '도심 활력 제고'



주제 발제 ②

광화문 일대 문화예술 클러스터의 가능성과 경쟁력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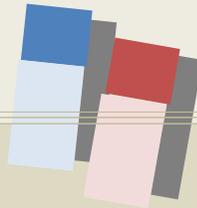
서울연구원을 거쳐 서울시립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문화산업, 도시발전, 혁신 클러스터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지리학회장, 한국산업클러스터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포럼, 매력도시 서울을 위한 광화문 일대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2023.06.08



광화문 일대 문화예술 클러스터의 가능성과 경쟁력



남기범[서울시립대]



I. 문화예술과 서울의 경쟁력

1. 문화와 경쟁력

- 존 스튜어트 밀: “어느 때 더는 경제성장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역지로 경제를 키우려 하기보다는 문화를 가꾸고 역사를 연구하면서 인류는 진화될 것”
- The presence of art and culture may actually draw or encourage the central-city formation of other advanced industries, as cultural industries are often viewed as an amenity that other high-human-capital employees seek out. (Currid and Connolly 2008, 422)

글로벌 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서울의 분야별 순위

※2022년 기준



자료: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

The JoongAng



PROGRAMMING
This category measures the experiential pillars of a great visit: food, shows, shopping and nightlife. If our Product category is the “hardware” of cities and destinations, the mosaic of cultural programming and lifestyle experiences they offer is the “software” that makes them run—including the subcategories of Shopping, Culture, Restaurants and Nightlife. While such programming initiatives are individually insignificant, their sum fosters a community’s connection to place.
Culture Number of quality performing arts and cultural experiences recommended by locals and visitors (TripAdvisor.com)
Nightlife Number of quality nightlife experiences recommended by locals and visitors (TripAdvisor.com)
Restaurants Number of quality restaurants and culinary experiences recommended by locals and visitors (TripAdvisor.com)
Shopping Number of quality shopping experiences recommended by locals and visitors (TripAdviso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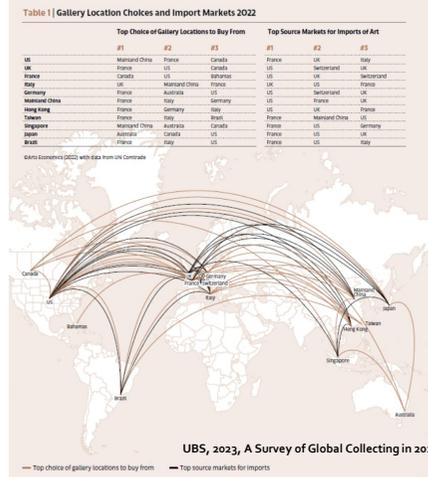
목차

1. 문화예술과 서울의 경쟁력
2. 도시의 문화예술 클러스터
3. 광화문 일대의 문화예술관광 공간의 가능성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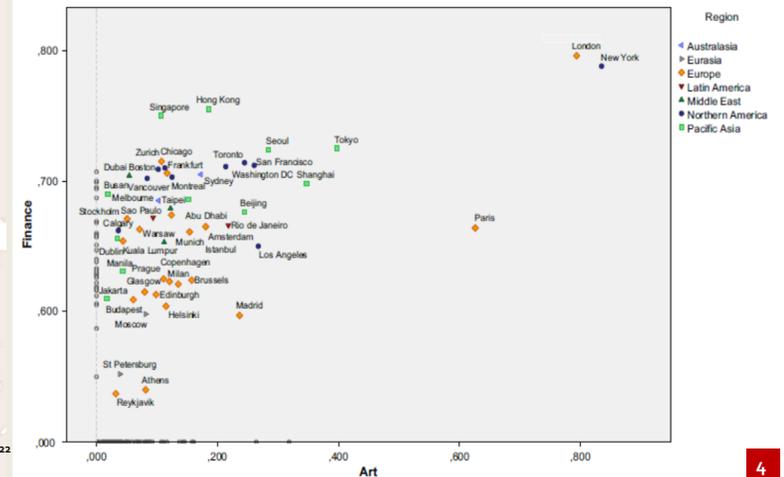


I. 문화예술과 서울의 경쟁력

2. global cultural cities



Caset, F. and Derudder, B., 2017, Measurement and interpretation of 'global cultural cities' in a world of cities, Area, 49, 2, 238-248.



I. 문화예술과 서울의 경쟁력

3. 도시는 역사와 문화의 대화 공간

- 역사는 과거의 것, 지나간 것 유무형의 기록과 유적, 삶의 형태에 각인된 정향성. 반면 문화는 contemporary 한 것. → 역사자원을 현대적 일상으로 이용, 변환, 치환하지 않은 것은 문화가 아님.
 - 도시공간은 장소성(역사문화 자원의 inertia)에 바탕을 둔 문화생산의 혁신창출능력에 의존함. 우리나라의 역사, 자연자원은 이미 대부분 관광지화 완료.
 - 역사유적과 자연자원은 그 자체로는 문화, 관광의 대상이 아님.
 -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 활용, 변환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콘텐츠를 창출해야 함.
-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 시대에 로컬의 한계를 넘어 세계 속에 매력적 존재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시각적으로 드러난 요소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문화예술이 구현하고 있는 가치를 통해서 가능**
 - K-pop, K-drama, K-movie와 한국의 셀럽을 통해 드라마와 영화, 한국 사회 속에서 구현해내는 스토리 때문.
 - K-pop의 스타일에 매혹, 지속적으로 매력 속에 빠지는 이유:
 - 스타일과 아름다움이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노력과 경쟁의 결과, 한국의 역사, 한국이라는 시스템에서 살아 가는 개인들이 특별한 태도와 가치, 이를 현대적 삶속에서 녹여낸 것을 인지하기 때문

5

II. 도시의 문화예술 클러스터

1. 문화예술 클러스터와 도시

- 문화예술의 집적:** 도시 내에서 패션쇼, 영화제, 박람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생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벤트는 상품화되어 도시의 상징적 가치와 브랜드 가치를 높임 → 이벤트의 활성화와 상품화는 엔터테인먼트 기제를 작동하여 '도시 씬(urban scene)'의 변화와 도시의 브랜딩을 추동
- 보헤미아(Bohemia):** 고급 기술과 역량을 가진 계층 →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오페라 하우스, 박물관, 극장,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 선호 →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관용적인 지역사회 → 도시의 경쟁력 강화 ← 전통적인 경제학적 생산요소보다 문화적 요인이 지역발전에 중요하다는 논리
- 도시 celebrities의 클러스터 형성:** → 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영화, 패션쇼, 수상식, 광고 등의 기반이 도시에 집중, 매니지먼트 사업, 광고회사 등이 도시에 집중 → 스타시스템이 도시지역에 착근, 문화예술 산업과 스타 클러스터의 공생과 성장 →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재현되면서 문화산업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 관광, 스타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고용 창출을 통해서 도시의 성장과 장소마케팅 추동. 도시 문화경제의 토대 (Currid and Connolly 2008)

7

I. 문화예술과 서울의 경쟁력

4. 문화는 soft power → 혼종, 복합, 교류의 핵심

- 공공부문이 기획을 통해 성취할 수 없는 매력, 미적 취향과 가치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가져오는 국가의 문화적 내용 → 한국의 대중문화현상이 주는 교훈과 인문학적 중요성이 부각
 - 국가, 지역의 소프트파워는 국가, 지역의 문화적인 매력, 문화는 상호영향 속에서 발전 → 문화의 장소기반성, 체험경제의 속성 →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 근원 [파리, 런던 대신 뉴욕, 베를린의 hot place 부상]
 - Gateway City: 문화 중심도시는 교류의 역사성, 글로벌시대 이전부터 사람, 물자,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
 - Open City: 문화 중심도시는 초국가적 영역성, 탈주선, 열려 있는 국가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 개방성을 가짐
 - Hybrid City: 이문화의 혼종, 차별과 충돌의 경험도 있지만 이를 극복한 조화로운 발전의 경험 → Culture of Heteropolis: hybrid complexity of cultural forms
- Cosmopolis(Cosmopolitan City): 세계화와 다문화의 다양성(multicultural diversification)이 공존
-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며, 소비문화의 다양성이 모자이크처럼 연결되어 도시에 역동성을 주고, 지역사회에서의 유대(convivial community)가 도시민의 소속감과 안정감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가 구성되어야 함.

6

II. 도시의 문화예술 클러스터

2. 예술가의 집적

- 예술가의 특성:** 1) 대도시민들이 예술 소비에 적극적, 생산자들은 규모 확대, 2) 주민들의 예술 활동에 대한 수요는 대도시에서 더 높고, 3) 광고, 미디어 등 집적산업은 예술가들의 수요와 소득에 중요요인, 4) 대도시의 예술가와 예술 공간은 관광객 유인, 5) 다양한 예술 활동 간의 시너지는 대도시와 도시 중심부에 집적, 6) 예술가는 대도시의 다양성과 혁신성, 문화제도에 유인(Markusen and Schrock 2006)
- 문화예술의 증진과 다양성, 도시산업 생태계의 진화, 외부환경에 대한 개방성 등 사회, 경제적 성과가 높아짐
- 대형 문화예술 시설위주의 정책보다는, 문화예술의 다양한 가치의 발전 및 상호교류가 필요. → 글로벌한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상업문화, 국가, 지역적 스케일에 집행되는 공공문화, 커뮤니티나 근린 단위로 이루어지는 인디문화 등이 중첩되면서 다중적이며 조화로운 발전을 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
- headquarter-located model:** Soho-영화사, 광고, 음악, 사진, 패션, 디자인, 갤러리 등 집적 → 문화적 다양성과 개방성을 가진 코스모폴리탄 지역 → 문화예술의 창작, 유통, 소비의 장소

8

II. 도시의 문화예술 클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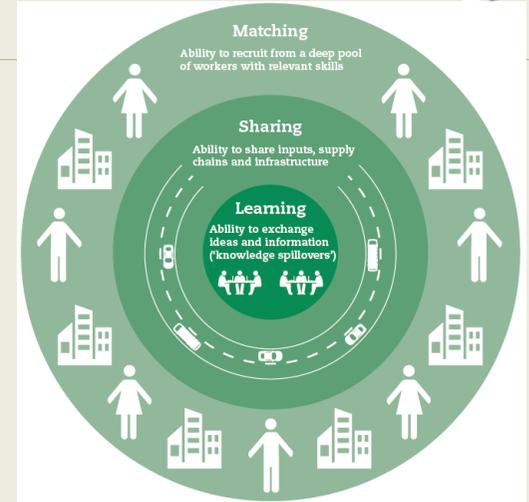
3. Bilbao Effects

- **Bilbao Effects:** 유럽구조조정기금의 지원으로 빌바오에 구겐하임미술관 설립, 문화, 예술, 관광산업 발전, → 도시의 세계적 문화예술 시설이 도시경쟁력 향상[도시의 역사성 계승과 환경개선, 산업거점 개편, 문화 콘텐츠 발굴, 도시 마케팅, 문화예술도시로의 전환, 독창적인 도시 이미지 연출, 세계적인 관광 명소, 시민의 자부심과 자긍심 고취 → 외부의 지배문제, 대형시설물 위주의 문화지배의 문제는 남아있음
- **젊은 예술가와 청년의 참여:** 시민, 관광객들과 적극 소통, 시민에게 일상의 재미와 즐거움, 위안과 치유를 주고, 예술창작에 영감을 주어야 함
- **공공, 비즈니스, 기업과 시민의 참여:** 특화되고 품격 있는 건축물 건립, 시민의 어메니티와 동시에 격조 높은 관광지 조성에 기여 → 시민의 예술적 참여
- **문화브랜드:** LA의 경우 프랑크 게리 설계의 디즈니 콘서트 홀, 리차드 마이어 설계의 폴 게티 아트센터 → 수려한 언덕, 아름다운 정원과 세계적 미술품 간직

II. 도시의 문화예술 클러스터

1. Global City의 문화예술, 도시경쟁력

- 글로벌시티의 금융, 고차서비스의 발전은 문화예술발전의 추동력
- 자본주의의 고도화, 인지문화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문화생산, 문화적 의미생산의 중요성 증대 → 민간부문의 문화예술 창작, 교류, 유통 증대
- 문화예술 창작, 비즈니스의 생산의 공유, 조합, 학습의 기제를 통한 집적
- 공유Sharing: 깊은 국지적 연계 - 생산체계와 이를 지원하는 공공재로서의 다양한 도시서비스의 불가분의 연계.
- 조합Matching: 인재와 작업장을 연계해주는 과정, 대규모의 국지적 기업과 노동력을 지원, 촉진해 주는 과정.
- 학습Learning: 공식, 비공식적 정보의 유통(혁신을 자극), 이는 집적을 통해 가능해지고, 집적을 강화함.
- → 강력한 경제적 시너지의 창출



Source: Center for Cities, 2016, Building the Northern Powerhouse, p.4

II. 도시의 문화예술 클러스터

4. Barcelona Model

- **Barcelona Model:** 1992 올림픽, 2004 세계문화포럼, 소나 페스티벌, 라발 다문화공생 페스티벌
 - **Sonar:** advanced music을 테마로 한 음악, 전람회, 퍼포먼스 등 (6월)
 - **Raval:** 도시재생지역, 70여개 국의 이민자 소통목적, 콘서트, 연주회, 퍼포먼스 등
- **20세기 초반의 바르셀로나: 남부의 파리**
 - 다양한 기념물이 많은 '위대한 바르셀로나' 건설, 도시의 위엄과 위대성을 세상에 알리고자 함 → 마드리드나 유럽의 여타 역사, 문화도시와 별반 차이가 없는 평범한 관광도시로 인식
- **21세기의 바르셀로나: 서부 지중해의 수도**
 - 다양한 예술 페스티벌, 전시회, 엑스포, 스포츠이벤트 등을 통한 시민의 참여
 - 도시민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선진화되어야, 유럽과 세계의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광과 국제비즈니스도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논리 → 近者悅遠者來



III. 광화문 일대의 문화예술관광 공간의 가능성

1. 광화문일대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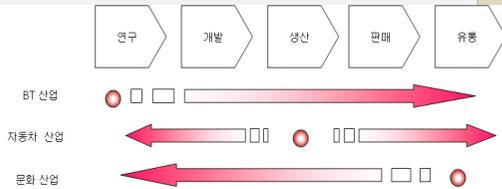
- 글로벌시티 서울을 상징하는 자본주의 발전의 상징 장소
- 서울 역사 공간의 복원을 통해 우리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 장소
- 집회와 토론의 광장으로 대변되는 시민민주주의의 상징 장소
- → 역사 문화 공간과 업무 비즈니스 공간으로 예측 → 역사 문화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공공 공간, 사용 가치 측면의 공간을 상징한다면 업무 비즈니스 공간은 새로운 경제 및 생산 공간, 자본 축적공간, 교환 가치 측면의 공간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 문화지구 가능성
- "미국대사관과 문화부를 합쳐 과천으로 유배 보낸 현대미술관의 기능을 수용하고 정보통신부와 정부종합청사를 과천으로 이전하고 국립도서관 내지 정보도서관으로 전환하고, 기타 나머지 공간은 세종문화회관이 목말라하고 있는 중규모 공연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세종로 광장은 되살아 날 것이다. 그래서 세종로 광장은 왕조시대 역사 유산인 경복궁과 함께 공화국 시절의 공공 문화 시설이 첨가되어 명실상부하게 역사와 문화가 파동치는 중심 공간이 될 것이다."(정기용, 2002, 「서울의 얼굴 세종로를 문화광장으로」, 『문화도시문화복지』, 132호)



III. 광화문 일대의 문화예술관광 공간의 가능성

2. 문화예술 클러스터의 조건

- (1) possessing positive aesthetic properties; (2) being expressive of emotion;
- (3) being intellectually challenging (i.e., questioning received views and modes of thought);
- (4) being formally complex and coherent; (5) having a capacity to convey complex meanings;
- (6) exhibiting an individual point of view;
- (7) being an exercise of creative imagination (being original);
- (8) being an artifact or performance which is the product of a high degree of skill;
- (9) belonging to an established artistic form (music, painting, film, etc.);
- (10) being the product of an intention to make a work of art;
- (11) art traditions and institutions



13



III. 광화문 일대의 문화예술관광 공간의 가능성

3. 광화문일대의 상징경제

- 광화문일대의 역사적, 정치적 상징성 외에 이를 스토리로 엮어내는 상징경제의 구축이 중요
- 문화의 생산적 측면이 중요, 유통,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의 구축 → 시민들과 함께 체험하고 공유하고 문화예술이 생산-유통-소비되는 문화예술시장(market)이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조성되어야 함 → '상호 연관된 경험체'
- 이를 위해서는 문화자원의 물리적인 집적만이 아니라,
 - 인재의 전문성, 문화적 수월성, 지속적인 시장기능 등의 복합기능을 조성해야 함
 - → 문화예술 클러스터의 가치는 장소와 결합된 문화자원과 서비스들이 집적된 장소에서 시장(마켓)의 강점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

15



III. 광화문 일대의 문화예술관광 공간의 가능성

2. 문화예술 클러스터의 조건- 도심의 특성

- (a) reassertion of the production in the inner city;
- (b) reconstruction of the industries and prospering of central business districts;
- (c) the innovative milieu of the inner city, including economic agglomeration and social agglomeration;
- (d) Intensive urban facilities such as galleries, museums, exhibition spaces, heritage buildings, parks, and squares and restaurants, cafés, and shops present an inner-city advan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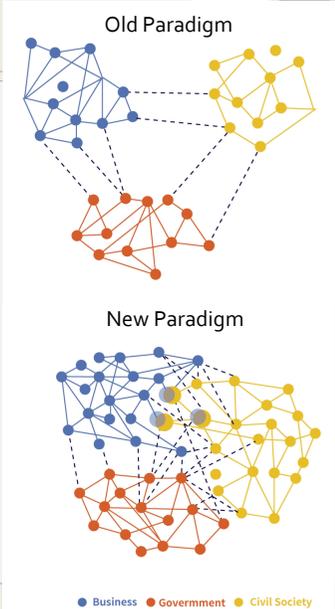
14



III. 광화문 일대의 문화예술관광 공간의 가능성

4. 광화문일대의 문화예술 클러스터의 거버넌스

- 문화매개자의 육성, 지원
 - Watchdog(권력감시)
 - Advocate(사회변화를 위한 인식개선, 옹호)
 - Service provider(사회서비스)
 - Expert(정책수립 및 문제해결을 위한 고유한 관점 및 지식, 경험)
 - Capacity builder(역량형성)
 - Incubator(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지원)
 - Representative(사회적 소수자 및 과소대표자 대변)
 - Citizenship champion(시민참여 및 시민권지원)
 - Solidarity supporter(보편적 가치촉진)
 - Definer of standard(시장과 정부활동에 대한 규범제시)
- → 부문을 가로지르는 협력, 파트너십, 혁신적 행위 증대
- 전통적 역할이 희미해지는 대신, Hybrid 조직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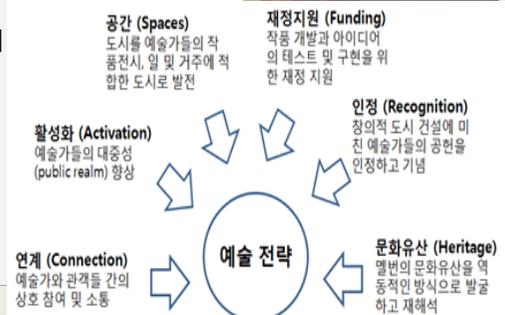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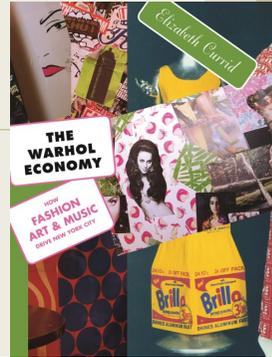
III. 광화문 일대의 문화예술관광 공간의 가능성

4. 광화문일대의 문화예술 클러스터의 거버넌스

■ 문화매개자의 육성, 지원: 뉴욕 패션산업의 사례

- 소셜 라이프는 크리에이티브(창작자), 셀러브리티(celebrity)와 트렌드세터(trandsetter, 새로운 유행이나 흐름을 선도하는 사람), 게이트키퍼(gatekeeper)들이 참여하며, 이 소셜 라이프가 문화와 경제를 이어주는 커넥터 역할
- → 패션, 미술, 음악, 디자인 등 산업들 간에는 상호 의존성 있으며, 크리에이티브들은 매우 유동적인 성격
- → 크리에이티브 산업이 서로 공생하며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현상은 어떻게 뉴욕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서 끊임 없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근거.
- 컬쳐 이코노미는 비공식적 사고 영역에서 '긴밀한 문화 공동체'로서 효과적이고, 문화 생산이라는 경제 시스템의 하부영역에 이러한 사고의 역학이 존재

■ → 비시장적 상호의존성: 도시로서 상호보완적인 문화적 제도(institution, 기관, 관습)적 역할



III. 광화문 일대의 문화예술관광 공간의 가능성

5.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 [인사동, 삼청동의 교훈]

- 글로벌시티, 포스트모던 도시의 특성: Inclusiveness, Tolerance, Interdependence, and Participation rather than growth,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 social capital for mature capitalist society
- **Gentrification has both sides of bright and dark dimensions.**
 -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효과
 - Improvement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space
 - Urban infrastructure provision
 - Increasing civic quality of life and amenity
 - Contribute to the financial foundation of local governments
 -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효과
 - Loss of placeness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 Filtering-up of place and displacement of artists, tenants, and local residents
 - Loss of cultural and spatial diversity.
- → 광화문일대의 문화예술 클러스터화, 관광개발은 문화예술활동의 위축과 파편화 가능성[인사동, 삼청동의 교훈]
- → 이에 대한 방지, 대응으로 공공프로그램, 시민참여 프로그램, 문화매개자의 활동, on local anchor facilities and local trust movement 등이 필요



III. 광화문 일대의 문화예술관광 공간의 가능성

4. 광화문일대의 문화예술 클러스터의 거버넌스

■ 문화매개자의 육성, 지원

- 문화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
- →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직접적이고 단선적인 연쇄로 보는 시각을 지양.
- → 수많은 문화매개자들이 생산과 소비 중간에 개입하면서 두 계기의 접합을 특수한 방식으로 수행,
- → 문화매개는 권력관계와 불평등의 재생산에 관련된 과정.
- 경제적 제약이나 경제에 의한 문화의 결정을 강조하던 관점으로부터 문화가 어떻게 경제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이동
- 문화적 실천과 경제적 실천을 분리시켜 별개로 다루기보다는 상호간의 관계에 주목. → 문화경제라는 시각을 부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 문화에 대한 접근성 강화: 문화매개는 문화 민주화 측면에서 문화예술작품과 관객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 둘 사이의 만남을 뛰어넘어 관객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적극적인 매개활동을 강조 → 중요한 것은 대상보다는 관계, 보급보다는 수용



III. 광화문 일대의 문화예술관광 공간의 가능성

6. 문화예술 제도화와 프로그램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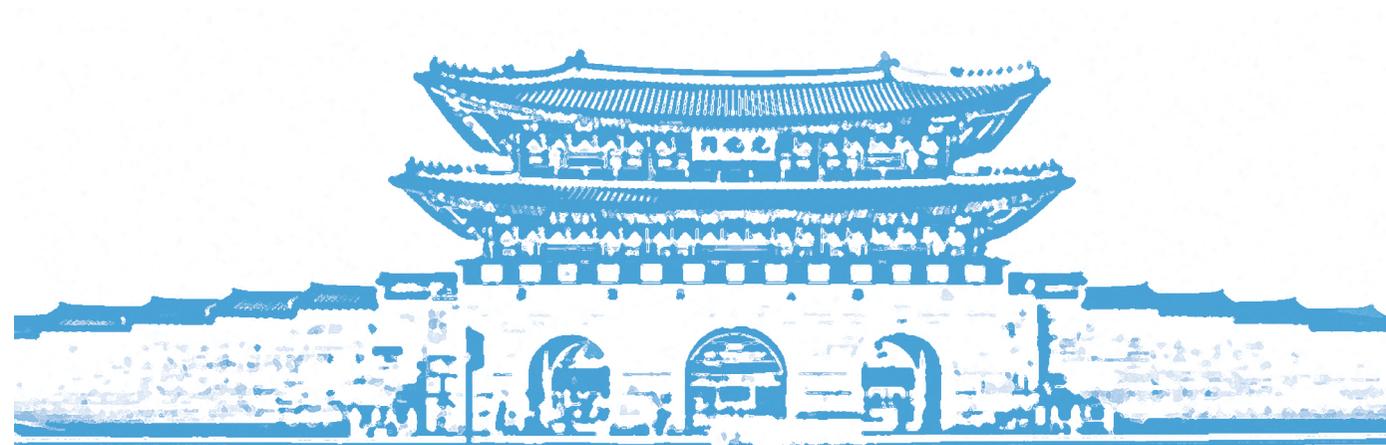
-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 운동(People for Public Spaces movement)과 같이 광화문일대의 문화시설, 프로그램, 예술활동이 루틴, 관습이나 의례가 됨 → 도심공간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시발점으로
 - 1. 동원(mobilization): 문화예술 어젠다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원동원을 위해 핵심 주체들을 엮어서 연합 형성 → 도시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즉 강력한 중개자로서의 활동, 개방성, 형평성
 - 2. 가시화(visibilization): 회의, 토의, 로비, 홍보 등 → 하향식 과정일 뿐만 아니라, 도시를 활용하는 모든 주체를 포함하는 풀뿌리 과정
 - 3. 지각화(sensibilization):
 - 번역: 기술적·학술적 용어로 쓰인 프로젝트의 개념을 일상적이고 평이한 언어로 해석 작업.
 - 적응: 프로그램의 내용을 관객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는 작업.
 - 공감: 프로그램의 메시지가 번역과 적응의 기제를 통해 소통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는 한 제한적인 영향만을 줌.
 - 4. 축제화(festivalization)
 - 문화예술이 도심에서 창조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유동적인 도시 문화'를 제공, 핵심적 기능을 제공
 - 문화예술행사는 도시 시스템에서 촉매 기능 → 도심의 장소성을 변화하게 함.
 - 문화예술은 '규칙적인 파동(pulsar)'을 내보내 장소를 물리적·상징적으로 변화시키는 촉매 역할 제공



IV. 결론

결론: 광화문 일대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 문화예술의 발전이 지역사회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와 소속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
-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경쟁력은 민간의 활동이 주요 성공 요인: K-pop, K-movies, K-drama, Art fair, 서울옥션
 - 뉴욕의 교훈: 민간중심의 패션, 예술, 문화 융성을 위한 제도화[gatekeeper, 연계활동, 교육, 훈련기관 등]에 재원 투입[연방정부, 뉴욕주, 뉴욕시]
- Bilbao Effects와 Barcelona Model 동시 추구 필요
 - 도심 문화예술의 가치사슬구조의 특성과 공공정책의 개입, 부문의 세심한 고려를 통한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필요
 - 빌바오 인구 35만명의 도시, 바르셀로나 160만명의 도시, 서울 주민 1천만, 주간인구 1,500만 이상의 도시 글로벌 도시
- 이러한 global-local interface가 도시경쟁력의 원천
- 글로벌시티 서울 도심의 문화예술 기관, 제도, 거버넌스는, 먼저 현대 한국인의 일상속에서, 젊은 사람들의 삶속에서, 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의 예술가, 소비자가 먼저 찾고, 문화예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문화예술의 창작, 향유, 소비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고 즐겨야(近者悅), 외국 관광객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찾고, 누리고(遠者來), 도시경쟁력의 향상으로 이어짐



주제 발제 ③

지역 문화와 크리에이터 자원을 활용한 광화문 문화지구 조성 방안



제4회
서울문화예술포럼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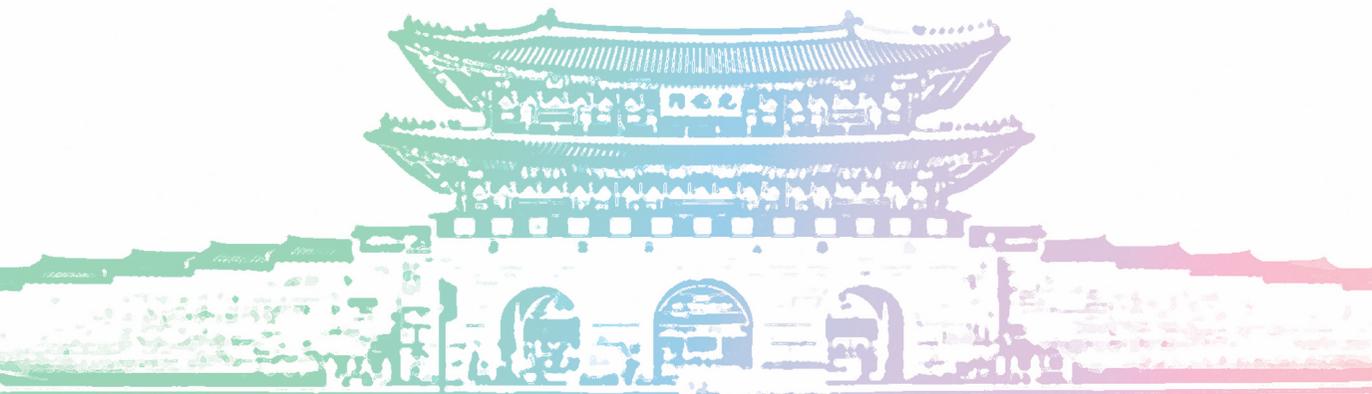
라이프스타일 변화에서 지역발전 기회를 찾는 연구자.
스타트업·예술가·소상공인이 커뮤니티를 통해
문화와 산업을 만들어내는 도시를 꿈꾼다.

주요 연구 주제로 로컬 크리에이터가 활동하는 골목상권,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생태계에 주목하고 있다.
저서로는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골목길 자본론>,
<인문학,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 등을 집필하였다.

공동회장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 배우
	최태지	前 국립발레단장
운영위원장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운영위원	길해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 배우
	김경훈	한국공연관광협회 회장
	김노암	문화역서울284 예술감독
	김선영	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김성한	세컨드네이처 예술감독, 현대무용협동조합 이사장
	김은균	함께걷는사람들 대표, 늘푸른연극제 집행위원
	김이삭	헬로우뮤지움 관장, 서울시미술관협회장
	김종덕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김지현	코리안컬처리더스 대표, 가톨릭대학교 음악과 겸임교수
	김희선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
	김희정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 교수
	남명렬	배우, 前서울연극제 예술감독
	박귀섭	비주얼아티스트, 사진작가
	박상연	박앤남공연제작소 대표, 연출가
	박숙희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과장
	박은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박재홍	한국발레협회 회장
	박정의	서울연극협회 회장
	박진학	스테이지원 대표이사
	박혜진	서울시오페라단 단장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
	방지영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사장
	서성교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손수연	단국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교수, 오페라평론가
	손정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송형중	서울특별시 문화수석

운영위원	신현수	인천사람과문화 이사장
	안두현	과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안현규	축제 연출가, 前강동선사문화축제 총연출
	양정웅	극단여행자 대표, 평창동계올림픽 총연출
	우주호	성악가, 한양대 ANMP 주임교수
	원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유은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국악평론가
	이경재	오페라 연출가, 前서울시오페라 단장
	이광복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이광수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이다현	리어예술단 대표
	이범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유리	서울예술단 단장 및 예술감독, 서울예술대학교 예술경영전공 교수
	이종규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
	이창희	한국예술문화정책연구원 원장
	이철구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이해준	한양대학교 무용예술학과 학과장
	이효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대일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
	임정혁	한국소극장협회 회장
	장인주	무용평론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장일범	음악평론가, CPBC-FM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진행자
	정용석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조남규	대한무용협회 이사장, 상명대학교 공연예술경영학과 교수
	차현석	극단후암 대표, 영국작가협회 회원
	최현주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한승원	HJ컬처 대표	
황준형	극단해보마 대표, 연출가	

제4회 서울 문화예술 포럼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문의 02-3290-7060

025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www.sfac.or.kr

본 책자의 무단 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